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3번째 왕인 아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역대하에는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언급된 아사는 15장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그는 늘그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상에 기록된 아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가 왕이 되고,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 십 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대하14:1). 그의 나라가 이렇게 평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2절).

아사는 왕이 된 후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또한 각종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고 아사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니 여러 견고한 성읍들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아사를 치러 올라 왔습니다. 구스의 군대는 100만 군사였고 병거도 300대나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사도 군대를 동원하여 맞서 싸우기 위해 나아갔지만 그의 군대는 아무리 끌어 모아도 60만도 채 안 되는 군대였습니다. 구스의 군대는 힘이 강한 군대였고 아사의 군대는 약한 군대였습니다(11절)

하지만 아사는 좌절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사에게는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에 의탁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 주셔서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11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스 군대를 치시니 구스 군대가 모두 도망하고 유다 아사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12-13절).

두 번째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를 찾아 온 것입니다. 아사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제 그가 유다의 왕 아사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15:2).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 때에는 세상이 어지러워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 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지역 성읍들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과 또한 그들에게 와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모아 들인 아사왕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12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맹세하였습니다. 유다에 모인 백성들은 이러한 맹세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의 개혁의 대상은 그의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를 왕의 어머니의 자리인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사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5장17절 말씀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사왕 35년까지 20년 동안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백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16:1).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아

사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람왕 벤하닷을 찾은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성전에 있는 곳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아람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나라였기 때문에 아람왕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람왕 벤하닷은 아사의 이러한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도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람왕은 아사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니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살펴보시며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이번에 왕이 행한 일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사왕의 나라 유다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화를 내며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백성 중에도 몇 명을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의 발에 병이 들었고 그는 심히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신이 낳을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아사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왕의 일생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습니다. 왕이 된 후 먼저 우상들을 제거한 것과 또한 구스 사람들이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발의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왕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또한 의사들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 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인 것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는 깊은 파도와 같고 높은 산과 같아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고 환난일 것입니다. 아무리 전후좌우를 살펴 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한 마음에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